

빈곤 독거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지형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Poverty

Ji Hyoung Jun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빈곤한 독거노인이 체험하고 있는 노후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노인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3월,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핵심주제는 '빈곤과 독거를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의 생애를 완성해가다'였다. 본질적 주제는 '가난을 편히 바라보며 살다', '건강한 마음에 깃들여 살다', '혼자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다'로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빈곤과 독거의 조건으로 접철된 생애에서 적절한 사회정책 및 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존중의 경험을 하였다. 자신의 빈곤과 독거를 운명으로 수용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만족을 초월하여 사회적 가치를 승화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의 경험이 빈곤한 독거노인이 체험한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빈곤한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통로 제공, 본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explore the nature of successful aging experiences of poor elderly living alone. A total of 14 elderly aged 65 and over participated in the stud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for analyzing the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ssential themes consist of 'Live in peace with poverty', 'Live with a healthy mind' and 'Live alone, but live with neighbors'. The integrated core theme was 'Accept poverty and solitude as given fate, to complete life with the blessing of sharing'. These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ir lives and experienced self-respect as appropriate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were supported in their lives marked by poverty and solitude conditions. They accepted their poverty and solitary life as fate and viewed life positively. They wanted to live a life, which transcends self-satisfaction and sublimates to social values. For the successful aging experienced by the elderly living alone,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support various channels to create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provide various experiences,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choose the right leisure activities for them.

Keywords : Social Welfare, Poor Elderly Living Alone, Successful Ag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Explore of Nature

본 논문은 전지형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Ji-Hyoung Jun(Sogang Univ.)

email: ithiel07@naver.com

Received September 23,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Revised November 12,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정안전부(2021)에서 발표한 2021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고령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작년보다 4.7% 증가하여 16.6%로 나타나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의 추세는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 54.6% 증가하여 우리사회에서 노인을 둘러싼 생활 실태와 욕구들을 살피는 것이 사회적 책무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1]. 보건복지부(2020)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19.8%가 독거가구이며, 독거노인 중 약 20%만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인부부가구(48.1%)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45.6%),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감(13.2%)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서 노인독거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공적이전소득(32.3%)가 사적이전소득(1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의 경우 소득의 높은 비중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적 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통한 부양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실태이다[2].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은 다년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축적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빈곤은 노인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이 가장 높다는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에 더해 영양불균형, 느슨하고도 취약한 사회적 네트워크, 자녀와의 소원한 관계, 생산적·사회적 활동의 단절, 건강 돌봄의 무기력함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3-5].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가난은 단지 경제적 곤란함에서 나아가 빠듯한 생계유지로 인해서 이웃, 지인, 친인척 및 자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주저하게 하여 독거노인 스스로 사회적 관계 단절을 선택하게 하기도 하였다[4].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결속 관계의 느슨함은 노인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생산적·긍정적 건강 유지를 위한 행위를 촉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3,6].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고립은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4고(苦)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가난이 질병을 다스릴 기회와 의욕의 동력을 끊고, 텅 빈 주머니와 지친 육체의 고단한 일상은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의 불씨를 꺼트리며, 이는 막연히 견디어내야 하는 시간을 무위(無爲)로 채우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단지 보편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상황 그 자체보다는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상태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를 유지를 위한 역할 수행, 생산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쇠퇴, 경제적 요인 등이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노년기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유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 긍정적 자아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8]. 또한 Faber와 동료들은 노인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발달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9]. 서구의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취해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했던 Ingersoll-Dayt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가족 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 등 의미 있는 지인들과의 조화로운 관계(Harmony), 가족 및 지인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Acceptance), 자신의 조연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존경(Respect), 홀로 혹은 타인들과 함께 느끼는 즐거움(Enjoyment), 이 총 5가지 요소가 삶에서 충족되었을 때 자신의 노화가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0].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에 접어들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학력, 경제력, 동거형태, 보유질환 수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만성질환의 보유의 수가 적을수록 성공적인 노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11]. 더불어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인식이 경제력, 배우자 유무, 몸의 기능적 건강 상태 등이 아닌 노인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서구의

학자들과 유사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혜경과 동료들은 (2005) 성공적 노화가 자아실현, 평화로운 마음, 주관적 만족감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으며[13], 김현경과 김공(2015)은 과거와 현재에서 노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만족하여 충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였다[14]. 권기창과 권승숙(2020)은 신체적 측면에서 질병이 없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노인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을 수용함을 통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적 측면으로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다[15]. 또한 성공적인 노화 요인을 측정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성공적인 노화 요인을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으로 구성하였고[16], 김동배(2008)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으로 구성하였다[17].

이와 같이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성공적인 노화 인식의 유의미한 변수인 학력, 경제력, 부부동거 등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구 및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성공적 노화가 전 생애에 걸쳐 노인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으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범위 뿐 아니라 그 질(quality)인 유능성, 주관적인 생활만족도, 긍정적인 감정, 가족 뿐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자아수용 등을 주목한 것을 볼 때[16], 저학력이며 가난한, 그리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한 독거노인 노화 과정에서의 삶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빈곤한 독거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함의와 빈곤한 독거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계량적 접근이 아닌 각 개인의 경험의 내부로 들어가 그 이해에 따른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현상학적 연구방법

이 연구는 빈곤 독거노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빈곤 독거노인들의 생애 체험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성공적인 노화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실행하였다. 현상학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상학은 연구자의 선입견, 편견, 이론적 지식 등 익숙한 믿음에 방해 받지 않고 경험세계 체험의 본질의 의미를 풍부한 기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18,19].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자 스스로 연구참여자의 세계 속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능한 한 연구자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감정이입적 몰입', 연구참여자의 진술의 세부적인 상황을 심사숙고하는 '속도를 늦추고 사색하기', 연구하는 현상의 의미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상황의 확대 및 확장', 연구자가 초기 감정이입적 몰입의 상태를 벗어나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중지 상태와 강렬한 관심의 채택', 연구참여자의 진술이나 사실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가 부여된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전화되는 '대상으로부터 그것의 의미로의 전환'의 탐구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19].

2.2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빈곤한 독거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구자는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방법을 통해 연구의 주제와 현상에 대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설명이 제시될 때까지 연구참여자와의 2차면담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사용하여 빈곤 독거노인 관계자나 전문가에게 연구참여자를 소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실천가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

여자 소개를 의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1인 가구로서 독거노인 자로 하였다. 또한 노인성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아 인지능력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총 14명을 연구참여자로 정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은 지속적 비교방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동안 이루어졌다. 각 연구참여자와 2~3회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보통 3~4시간이었다. 면접은 연구참여자를 소개해준 복지관 직원 혹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 상담실,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소개해 준 직원과 생활관리사 동석하에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면접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 시 연구자는 최대한 메모를 자제하며 연구참여자의 내레이션에 집중하였고, 면접이 종료된 후 바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 4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 진술 자료 전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료 전체를 읽어서 전체 인식하기를 하였다. 둘째, 빈곤 독거노인들의 기술 내용을 의미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기 단계로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에서 중요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 그대로 의미단위 분절을 실행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서로 공통된 의미단위로 묶고, 이를 연구자의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을 거치며 사회과학적 용어로 변형하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통합하며, 빈곤 독거노인들의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는 작업으로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빈곤 독거노인 노화 현상의 일반적 구조를 파악하여 본질적 주제를 추출하였다[19-21].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SGUIRB-A-1611-29), IRB의 권고사항에 따라 녹취록을 비롯한 모든 분석 자료들을 USB에 저장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 연구를 중단하고 참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비밀 및 사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 기준을 따라 다원화 전략과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원화 전략으로서 자료출처의 다원화에 중심으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심층면접 자료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장기간 이용한 종합복지관의 책임자, 실무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전문가들의 기록, 면담자료 등과 더불어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활동기록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분석과 연구 과정 전반에서 범할 수 있는 방법적·해석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동료로서 사회복지학 박사 2인, 노인복지 전문 실무 사회복지사 1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인에게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의 목표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빈곤 독거노인의 생애에서 경험된 성공적 노화 의미의 핵심주제는 '빈곤과 독거를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의 생애를 완성해가다'였다. 본질적 주제는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가난을 편히 바라보며 살다', '건강한 마음에 깃들여 살다', '혼자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다'로 명명하였다.

3.1 가난을 편히 바라보며 살다

3.1.1 가난에 구속되지 않게 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평생 따라다닌 가난함에서 죽는 날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가난에 매여 살지는 않기로 매일 결심하며 살아간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한 지점에서는 가난 때문에 흠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의 대한 그리움, 수없이 다녀야 하는 이사로 인한 서글

품,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을 충분히 사 입을 수 없는 아쉬움과 우울감에 갇혀버린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감정들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을 키워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도 본인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작은 집이지만 넓고 지친 몸을 편히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했고, 좋은 옷을 충분히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벗어나서 수치심을 겪지 않아도 되니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난을 자신의 삶의 조건이 아닌, 생애에 나타난 하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상황을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삶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관망하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었지 선생님. 뭐 보는 눈이 없었겠어. 내가 없다고 생각해 버린거지요. 그러니 어떤 옷을 입으면 어때. 내 집이 정신없으면 어때.” (연구참여자 8)

“그냥 놀러가서 꼭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지나가겠지나. 하하하. 그렇게 괜찮어 안 지나가도. 그냥 난 익숙해져서 괜찮아. 내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야.” (연구참여자 3)

3.1.2 꼭 필요만큼 채워지는 수급비에 만족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꾸려 살아가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급비로만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급비를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고, 적은 수급비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급 자격 덕분에 매일 밤 편히 잠들 수 있는 집이 가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소비하면 반드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급비는 젊은 세대들에게 빌려 쓰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절제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지는 않지. 어디 많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근데 딱 필요해. 부족함도 없어 뭐. 난 좋아요. 충분해” (연구참여자 6)

“난 그렇게 생각해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디 노인들한테 당연한 거 어딤어. 그런 노인네들 있다고 근데 아니야. 다 여기 선생님처럼 젊은 양반들 밥릇 나눠 먹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잘 이렇게 이렇게 아껴서 고마운 마음으로.” (연구참여자 1)

3.2 건강한 마음에 깃들여 살다

3.2.1 긍정의 길을 선택하다

연구참여자들도 가난, 독거, 무위, 질병 등 노인들이 경험하는 4苦的 겪고 있었다. 그렇지만 혼자 외롭게 산다는 생각보다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하는 일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자녀는 그만큼 나쁜 소식이 오지 않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위(無爲)함에 함몰되지 않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거나 뜨개질과 같은 돈이 들지 않은 취미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매일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동안 쉼이 쌓인 다양한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신체적 쇠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체력이 허락해주는 한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으로 바꾸어내고 정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난 혼자 사는 거 있는 거 아주 좋아요.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안 졸리면 텔레비 맘껏 틀어놓지 말이지. 워낙 내가 긍정적 이란 말이예요.” (연구참여자 4)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뭐라고 못 해. 아니 우리 노인네들은 젊은 선생님 같은 양반들하고 틀리지.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든 뭐든 해. 생각처럼 되는 거다” (연구참여자 7)

3.2.2 마음으로 몸을 단련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누워 있어도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였다. 또한 운동, 뜨개질교실, 하모

니카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신문을 빌려 매일 읽기도 하였고, 혼자서 낱말게임을 하며 스스로를 훈련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젊은이에게 가르치고 대접만 받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기를 자처하고, 스스로 여러 일을 찾아 만들어 활동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노인이 아닌 내일을 맞이하는 생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적인 힘으로 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여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정신과 신체 모두를 의미 있는 그 무엇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000선생님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제. 근데 그 선생님이 할 수 있게 내가 그거 할려고 신청하려고 했을 때. 그 때 할 수 있게 쪽 판을 깔아줬고 난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해서 다 했지. 기계 안 쓰면 근지요? 망가지지요? 사람 몸도 똑같아요. 스스로 다독여서 해야지. 움직여야지 몸을 잘. 그러면 근육이 붙어 여기저기. 몸도 마음도.” (연구참여자 9)

“그 뜨개질 교실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건강해진 거 같아 나는. 약속한 시간에 피곤하든 졸리든 나가야 하잖아. 나갈려면 씻어야 하잖아. 하는 거지. 귀찮지. 그래도 하는 거지. 그렇게 오래 하니 건강해 진 것 같아 나는.” (연구참여자 3)

3.2.3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마음의 부자가 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노인이기, 가난하기, 또 이웃이기, 받은 배려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되갚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수급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 되갚자는 마음으로 동네에서 청소하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누워만 있는 동네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웃과 지역사회에게 받는 배려, 수급비,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선물처럼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에 건강, 시간, 재능, 경험 등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되갚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지 않고, 낭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하였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받으면 그 마음과 배려를 갚고자 노력하였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공유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어려워요? 아니야. 노인네가 할 수 있어서 할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여. 돈 쥐도 못 해 아니면.” (연구참여자 1)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예요. 마음의 부자여야 해요. 그것을 잘 알아야 해요. 다 비어내야 부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연구참여자 11)

3.3 혼자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다

3.3.1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복지관 직원들

연구참여자들은 명절에도 만나기 어려운 자녀보다 언제든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먼저 연락해주고 방문도 해주는 복지관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복지관 직원들은 외로울 때 함께 식사를 해주고, 집에 전구를 갈아주고, 수술할 때 보호자가 되어주는 등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귀한 손길이 되어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서 발전시켜 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 타고난 뜨개질 실력으로 복지관에서 뜨개질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팔아 기부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연구참여자 3이 지속적으로 뜨개질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은 실을 후원받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복지관 직원들에게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콩국수나 수제비 등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니 난 고맙잖아 또. 응 뭐 언제나 좋은 음식이라고 내가 오소, 하면 와서 같이, 저번 주에도 내가 그 000 선생님이랑 000선생님 오라 해서 이렇게 수제비해서.” (연구참여자 3)

3.3.2 나의 119, 이웃 노인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매일 만나며 지내는 이웃 노인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보호자이자 방문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핸드폰 단축번호에 자녀가 아닌 가까이 사는 노인친구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갑자기 밤늦게 아플 때나,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 13의 경우 이웃 노인에게 매일 아침 일찍 자신의 집 대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일단 들어와서 자신의安危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며 지내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관찰자 이웃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해 떴는데도 내가 대문 열어 안 났거든 와서 들여다보라고. 이 할머니가 왜 아직이야 하고 꼭 보라고 내가.” (연구참여자 13)

“그 때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내가 놀래서. 아니 뭐 어떻게 누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서울에 그 친구한테 전화했지. 그랬더니 딱 약 보내줘서 바르니 삭 나야. 얼마 나 고마운지 내가 그랬어” (연구참여자 2)

3.3.3 서로 나눔을 통해 이웃 되기

연구참여자들은 동네 노인이나 주민들과 서로 마늘, 생강, 참살, 과일 등을 나누며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가난과 독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만 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받으면 그 마음과 배려를 갚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서로 나눔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단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 마음을 가까이 하여 살고 있기에 이웃이 되고 있었다.

“다니다 보면 말짱해. 그럼 내가 그걸 주위다가 아주 얼마나 닦게요 빛이 나. 그럼 이제 내가 그 양반한테 가져다주는 거야. 얼마 전에 밥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 돌아다니다가 좋은 종이 가방 삭 다 모아서 미용실 사장님 가져다주는 거지. 노인이라고 머리파마 깎아 주고 그래. 그렇게 서로 그러지 서로.” (연구참여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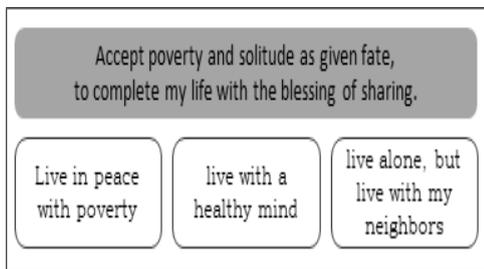


Fig. 1. The integrated core theme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인식하는 본인의 노화 과정의 성공적인 기준, 노인 본인이 체험한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빈곤과 독거, 신체적 취약함 등의 조건을 가진 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

미를 밝힌 연구들은 찾기 어려운 한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 독거노인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한 경험이 충분한 노인 14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빈곤 독거노인이 인식한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는 ‘빈곤과 독거를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의 생애를 완성해가다’로 나타났다. 핵심적 주제를 구성하는 본질적 주제는 ‘가난을 편히 바라보며 살다’, ‘건강한 마음에 깃들여 살다’, ‘혼자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다’로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생에서 화양연화와 같은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고 시리도록 빛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그들의 빈곤은 최선과 노력으로도 벗어나기 어려운 삶의 상황 그 자체였다. 또 빈곤은 그들에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했고, 빈곤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혼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부모, 이 연구참여자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적절한 부양을 기대하지 못한 채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의지하여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빈곤은 자녀, 지인, 친인척들과의 관계 단절을 야기했고, 연구참여자들의 고립은 자신의 삶을 방임하게 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성공을 찾아내기 어려운 배경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은 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빈곤 또는 관계가 소원한 자녀를 원망하는 마음에 묶여 있지 않고 지역공동체, 이웃, 복지관의 직원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들을 탐색하였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힘과 기회들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가난에 밀려 발견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재능, 자원 등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사회적지지 체계들은 그 확인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었고, 그 즐거움도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삶의 새로운 경험과 소통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며 자기회복과 자기존중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최선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조건, 시간 자원 등을 타인에게 조건 없이 나누며 자신의 고단한 삶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수용적인 자세와 이타심을 갖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들 중 아

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확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삶의 현장에서 빈곤과 독거, 그리고 노인이라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의 상호작용을 온 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 고단한 조건들에 얽매어 우울과 불안을 취하기보다는 고단함의 소용돌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지원들을 발판 삼아 자기존중을 이루어내고, 또한 이를 초월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완성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연구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노화라고 의미 짓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로 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성찰하며, 자신의 과거 삶을 직면하여 자기존중의 장(場)으로 갈 때 중요한 삶의 조건은 주거환경의 질(quality)보다는 안정성(stability)였다. 외부 상황의 영향에도 쉽게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곤과 독거를 피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남은 생애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독거노인들마다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의 상황이 모두 달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단지 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지원수준으로 나뉜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빈곤한 독거노인의 전(全)생애는 '가난함'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즉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신의 과거가 아쉬운 이유가 단지 문맹의 답답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공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현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교육과 경험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빈곤한 독거노인 각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이 이루어져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인식할 때 중요한 조건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였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도, 매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꽤 오랜

시간동안 만나온 지인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뢰를 가지고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관계,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일시적인 관계더라도 내일, 혹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생산적인 시간·결심·결과·물·활동 등을 만들어낼 긍정적인 힘을 주는 동기였다. 이를 통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누군든 주체적으로 찾아가서 소통을 하기 어렵거나, 혹은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수동적인 소통이라 할지라도 빈곤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빈곤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내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매일의 삶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고 완성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빈곤 독거노인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삶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빈곤과 독거를 운명으로 수용하면서 현실의 매일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채울 힘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든 지역사회공동체에 되갚거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면서 사회적 가치로 승화하고자 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들이 인식한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였다.

지방 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 빈곤 독거노인들에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제공자가 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서비스가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 인프라와 공적 지원의 접근성이 수도권보다 낮은 비수도권의 빈곤 독거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을 다루는 심화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Y. K. Yun, 2020 Survey of the Elder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uth Korea, 2020.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2021.
- [3] H. J. Lee, G. D. Ahn, "The Stud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a Shabby One-roo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3, No.2, pp.33-62. 2013.
- [4] H. Y. Baek.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overty among the Poor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31, pp.5-39 Sep, 2006.
- [5] M. K. Cho, "A Qualitative Study of the Experience of Poor Older Men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No.61, pp.7-34. 2013. DOI: <https://doi.org/10.21194/kjgsw.61.201309.7>
- [6] Y. S. Kim, "The Study of the Impact of the Family Type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4, No.3, pp.400-429, 2014.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4.34.3.400>
- [7] K. O. Kim, S. B. Kim, "New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Well-Being and Well Dying",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18, No.2, pp.309-317, 2020. DOI: <https://doi.org/10.46669/kss.2020.18.2.029>
- [8] Rowe, J. W. & Kahn. R. L.,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p.71, p.169-177.
- [9] M. V. Faber, J. Gussekloo, D. L. Knook, Successful aging in the oldest old: Who can be characterized as successful aged?,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141, pp.2694-2700.
- [10] Ingersoll-Dayton, Berit, C. Saengtienchai, J. Kespichayawattana & Y. Aunguroch,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Style: The perspective of Thai elder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16, pp.283-302.
- [11] D. N. Oh,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trategy of selection-optimization-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moe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The J. of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 Vol.19, pp.81-98. 2001.
- [12] H. K. Choi, J. E. Paik, S. Y. Seo,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3, No.2, pp1-10, 2005.
- [13] H. G. Kim, K. kim, "Asuccessful Aging Expectation Perception Scale Development of Integration 'Mind and Body+Society' based on the Leisure Activity"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4 No.3, pp.401-419, 2015.
- [14] K. C. Kown, S. S. Kown, "The effects of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n successful aging, especiall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34, No.4, pp.255-277, 2020. DOI: <https://doi.org./10.24210/kapm.2020.34.4.011>
- [15] M. H. Kim, K. R. Shi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5 No.2, pp.35-52, 2005.
- [16] D. B. Kim,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3, No.3, pp.211-231, 2008.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8.60.1.009>
- [17] N. I. Lee,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Vol.24, pp.91-122. 2005.
- [18] S. Y. Park, "The stigma and Coping Experience of Divorced Wome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Master's teh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39-56, 2018.
- [19] S. Y. Hwang, "A study on subjective experiences for trigenerian' discharged from children welfare facilities - Research on phenomenology of Giorgi ",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0 no.4, pp.7-35, 2018.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8.70.4.001>
- [20] K. O. Ji,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lf-Sufficiency Experience of Female Householders in Poverty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Social Cooperative",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26 No.4, pp.207-231, 2018. DOI: <https://doi.org/10.22921/jrs.2018.26.4.011>

전 지 형(Ji-Hyoung Jun)

[정회원]



- 2011년 8월 : 서강대학교 일반대 학원 여성학협동과정(여성학석사)
- 2019년 2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 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1년 8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우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